"사용하던 녹슨 대문 뜯어다 연극 소품으로"

시한부 삶 손녀가 할머니와 장례 준비하는 이야기
인기 연극 '안녕 말판씨' 무일푼으로 시작
입소문 타고 장기 공연 안착하기까지 갖은 고생

배우 성병숙이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라디오 드라마였던 '안녕 말판씨'를 연극 무대에 올리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했다. 사진=박성원 기자

배우 성병숙

"이 대문은요. 작가 분 고모님이 포항에서 쓰시던 철재 대문을 뜯어 온 거예요. 또 이 안방문은요. 작가 분 어머니께서 쇳물 만지는 용접 일을 하시는데, 저희를 위해서 직접 만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 달랑 세트 두 개만 놓고 시작을 했죠."

올해 8월 말부터 두 달여간 대학로를 뜨겁게 달궜던 연극 '안녕 말판씨(연출 홍루현)'는 정식 공연으로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018년 11월 라디오 드라마를 통해 이 작품을 처음 접한 배우 성병숙(64)은 '연극 무대에 올리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접 무대를 구하러 발품을 팔았다.

장소는 아는 극장 대표에게 부탁해 스케줄이 비는 월·화요일에는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물론 대관료는 무료였다. 무대 소품은 작가의 가족 도움을 받아 마련했다.

배우들은 '경상도 사투리 되고, 연기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환영'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주위에서 끌어모았다. 주인공 고애심 여사의 딸 이수연 역에는 성병숙의 친딸(서송희)을 섭외하고, 사위 역에는 서송희의 학교 동기를 섭외하는 식이었다.

"지난해 이 작품을 처음 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홍루현 작가님과 함께 연극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그런데 저희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무일푼으로 시작했죠. 그렇게 알음알음 배우들을 끌어모아 '노개런티'로 연극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밥 사먹을 돈이 없어 배우들끼리 연습만 하고 헤어지기로 약속할 정도였다. 어렵게 구한 한 관에서 프리뷰 공연으로 시작했다. 처음엔 작가 가족이 만들어준 대문 두 개가 세트의 전부였다.

그런데 관람객들 사이에서 '재미있다'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안녕 말판씨'는 월·화요일뿐만 아니라 수·목·금·토·일요일까지 프라임 타임을 장식하는 장기 공연작이 됐다.

"그야말로반응이 터진 거죠. 공연 초창기 때 저희 공연을 3번이나 보러 오셨다는 분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당신이 아주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희 공연을 보고 너무 힘을 받아서 계속 오게 되더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공연을 하는 저희들도같은 심정이에요. 이걸 하고 나면 정말 막 힘이 솟고 신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안녕 말판씨'는 '죽음'을 화두로 삼고 있다. 말판증후군(Marfan syndrome)에 걸려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주소원은 할머니(고애심)를 설득해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한다.

얼핏보면이해가 안가는 행동처럼 보이나, 연극을 보고 나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자신이 죽고 나면 쓸쓸히 홀로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할머니를 생각해 미리 '사전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심한 주소원은 인정 많은 이웃들과 십수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축제 같은' 장례식을 준비한다.

59세 고애심 여사는 친딸에 이어, 이젠 함께 살고 있는 손녀딸마저 먼저 떠나 보내야 하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다. 엄마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란 주소원은 아직 19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언제 닥칠지 모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얼굴에서 그늘진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끔은 기구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고 가족에게 앙칼진 원성을 토해내기도 하지만, 금세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인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밝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에는 '인생? 그거 별거 아냐. 신나게 살면 돼. 정말로 중요한 건 바로 오늘이야'라는 모토가 깔려 있어요. 나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기엔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

성병숙을중심으로 하나둘 모인 배우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사연을 안고 있다. 배우 중 한 명은 방광암 2기로 투병 중이다. 빠듯한 출연료덕분에 생활고는 기본. 연극인용 임대 주택에 들어간 배우들은 그나마 다행이다. 대본을 쓴 작가 역시 드라마 단역·조연 생활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저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이 결코 남 얘기가 아닌 거죠. 다들 한 가지씩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다들 연기를 하면서 힘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젊고 용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연기를 하면서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라디오 드라마를 연극 무대에 올려 '대박'을 친 성병숙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안녕 말판씨'를 극장에 거는 것이다.

"이걸지금 얘기해도 되나 싶은데, 지금 '안녕 말판씨'를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작가님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요. 예감이 좋아요. 작가님이 워낙 감각이 있는 분이라서요. 이 분은 드라마 연기도 겸하는 분이라 나중엔 드라마 작가를 하셔도 성공하실 것 같아요."

연극 '안녕 말판씨'는 아쉽게도 27일을 마지막으로 무대에서 내려가지만, 성병숙의 농익은 연기는 대학로의 다른 극장에서 또 만날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대학로 자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테너를 빌려줘'에서 성병숙은 친딸 서송희와 함께 또 한 번 '모녀 케미'를 발산할 예정이다.

조광형 기자 theseman@naver.com

'아이오아이' '워너원' 멤버도 조작됐다

경찰 "투표 원본 데이터 확인했더니 연습생 순위 달라"
선발 연습생들 중 일부 순위 조작해 포함시켜

프로젝트 보이그룹 워너원(Wanna One : 강다니엘, 박지훈, 이대휘, 김재환, 옹성우, 박우진, 라이관린, 윤지성, 황민현, 배진영, 하성운). 사진=시장경제DB

경찰 수사 결과, 케이블채널 엠넷(Mnet)이 제작하고 방영한 '프로듀스 시리즈' 전체에서 투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오디션에 응시한 가수 지망생들을 시청자들이 직접 투표해 가수로 만들어 주는 시청자 참여형 예능프로그램. 2016년 첫 방송된 '프로듀스 101'부터 올해 방송된 '프로듀스X101'까지 4년간 시리즈를 이어오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프로듀스 101'과 2017년에 방송된 '프로듀스 101 시즌2'를 통해 최종 선발된 연습생 중에 애당초 순위 안에 들지 못했던 연습생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찰이 생방송 시청자 문자투표 결과를 담은 원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문자투표를 관리했던 업체를 통해 투표 원본 데이터가 엠넷이 마지막 생방송 때 발표한 연습생 순위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듀스 101'을 통해 결성된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오아이'는 10개월가량 활동하며 10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고, '프로듀스 101' 시즌2을 통해 데뷔한 프로젝트 보이그룹 '워너원'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1년6개월간 활동하며 무려 8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된 안준영(40) PD로부터 시즌3~4격인 '프로듀스 48'과 '프로듀스X101'에서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20명의 연습생들의 순위가 시청자 투표와 무관하게 이미 정해졌고, 자신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시즌1~2에서도 동일한 조작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안 PD는 경찰 조사에서 "시즌1·2에서는 투표 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었다.

지난 5일 시청자 투표 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된 안 PD와 김용범 CP(45·총괄프로듀서)를 업무방해, 사기,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지난 14일 또 다른 제작진 1명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7명을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안 PD를 비롯해 엠넷의 본사인 CJ ENM 관계자에게 40여차례에 걸쳐 술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6곳의 연예기획사와 CJ ENM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 강도를 높인 경찰은 CJ ENM에서 엠넷 부문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형관 부사장(음악콘텐츠본부장)도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엠넷을 총괄하는 신 부사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경찰은 '프로듀스 시리즈'의 최종 결재권자나 CJ ENM 고위 간부들이 이 같은 투표 수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광형 기자 theseman@naver.com

가수 평균 연봉 1억원…

'상위 1%'는 48억 벌어
공개된 국세청 자료 보니

2017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가수 중에서 '소득 상위' 1%에 든 가수들이 전체 가수 평균의 48배에 달하는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총매출액에서 각종 생산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가리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귀속분 사업소득을 신고한 가수들(2758명)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은 2803억원이었다. 이를 1인당으로 계산하면 가수 한 명당 연평균 1억16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28명의 총소득은 13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수 소득(2803억원)의 절반 가량(48.7%)을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다시 1인당 소득으로 나누면 상위 1%에 속하는 가수 한 명이 48억7500만원을 벌어, 전체 가수 평균보다 48배 더 많이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가수들이 신고한 사업소득의 총액은 7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1%에 속하는 가수들이 3년간 벌어들인 소득 총액은 3874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가수들이 3년간 올린 사업소득의 절반 가량(48.7%)을 상위 1%가 차지하고 있었다. 2016년의 경우엔 상위 1%에 속하는 가수들의 총소득이 1564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가수 소득(2998억원)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 극소수의 상위 소득자가 전체 종사자 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위 소득자들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는 만큼, 사업자들의 성실 납세를 위해 납세제도를 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형 기자 theseman@naver.com

신간 서적

페이스북은 내가 우울증인 걸 알고 있다

버나드 마·매트 위드 지음
봄빛서원 펴냄
340쪽 1만8000원

인공지능이 기후변화부터 암 치료까지 인류가 직면한 최대 난관을 해결할 구세주라는 과장된 주장과 정보를 걷어내고 인공지능이 오늘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술의 실제를 말한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바이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텐센트와 같은 거대 IT기업들은 물론 산업 분야를 불문한 스타트업 기업들과 전통적인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소개한다. 책 제목처럼 페이스북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사용자가 우울증에 빠졌거나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단서를 찾아낸다.

2020 빅 체인지

KT경제경영연구소 지음
한스미디어 펴냄
596쪽 1만8500원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갖춰진 모바일 인터넷 환경, 사물인터넷의 대두, 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속성을 지닌 5G와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해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인공지능 등 초연결사회의 실현을 앞당길 거대한 변화를 '빅 체인지'라는 키워드로 아우른다. KT경제경영연구소는 글로벌 ICT 기업과 미국 통신 3사, 주요 스타트업의 최근 투자 움직임을 조사 분석했다. 그 결과 빅 체인지를 이끌어갈 양대 핵심 동력인 5G와 인공지능, 그리고 이 양대 기반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융합기술 18개를 정했다.

소득의 미래

이원재 지음
어크로스 펴냄
404쪽 1만6800원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생계를 꾸리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노후를 준비한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보통의 삶, 당연한 삶이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도 이럴까?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은 사람 없이도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제는 일자리가 없고, 월급이 없는 것이 삶의 기본값이 됐다. 저자는 기존 임금노동 대신 '자유노동'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저자는 국가가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조건 없이 현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초연결사회와 보통사람의 시대

이정전 지음
여문책 펴냄
352쪽 1만8000원

다가올 미래는 인류사에서 처음 맞는 디지털 시대, 대량실업 시대, 탈노동 시대, 풍요의 시대, 보통사람의 시대로 전통적 의미의 자본주의가 쇠퇴하고 대중 기반 자본주의가 뿌리 내리는 초연결사회가 될 전망이다. 저자는 "앞으로는 미래에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 우리 아이들을 이 학원 저 학원으로 내돌리며 혹사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된다"며 "교육분야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역량과 특성, 기호에 맞는 최적의 교육 내용을 설계한 뒤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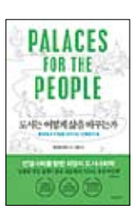
커넥트 파워

박영규, 이재열, 한준, 이원재, 강정한, 임이숙 지음
포르체 펴냄
292쪽 1만6800원

초연결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공유 경제를 통한 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기회와 위기는 함께 온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플랫폼화 등 디지털 혁신 이면에 도사리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저자들은 '커넥트 파워'를 통한 가치 혁신이 미래 경쟁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한다. 조직의 리더들은 기술 혁신으로 인한 디지털 아노미를 '공유'라는 가치로 극복하고, 위계적인 조직을 자유자재로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을 통해 가치지향적인 소비자들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에릭 클라이넨버그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펴냄
372쪽 1만7500원



우리나라 국민 92%가 국토 면적 17%에 불과한 도시에 몰려 산다. 그 수는 지난해 현재 4천759만6천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개인의 고립과 집단의 분열, 계층의 양극화 시대를 산다. 갖가지 잣대와 경계로 나뉘고, 각자 투명한 막에 둘러싸인 듯 지낸다. 미국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이런 고립과 양극화, 불평등과 분열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의 문제라고 단언한다. 저자는 물리적·심리적 공존이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음을 풍부한 연구와 다양한 사례로 보여준다.